

 숨은그림찾기

<143>



(찾) (아) (보) (세) (요) 제비, 셔틀콕, 스폰, 은행잎, 다리미, 종이배, 슬리퍼, 우유팩, 물고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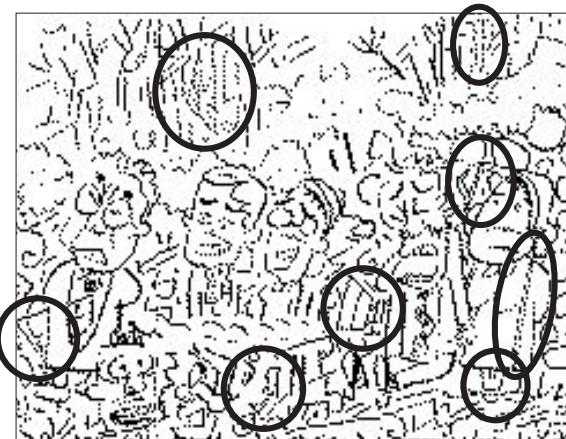
무엇이 될까?

어느 부부의 아들 첫돌 날 남편은 돌상
에다 지폐와 성서,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올
려 놓았다.

아내 : “여보, 이게 다 뭐예요?”
남편 : “응, 돈을 집으면 사업가가 될
것이고, 성서를 집으면 성직자
가 될 거야. 술을 집으면 술꾼이
되겠지.”

아이는 지폐를 집어 손에 쥐었다. 그런
다음 다른 손으로 성서를 집어 겨드랑이에
끼더니 소주병을 움켜잡았다.

남편 : “저녀석은 앞으로 정치가가 될
것 같아.”



지난주 정답

롯, 셔틀콕, 다리미, A자, 비늘, 음표, 열대어, 승시리

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.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
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주첨, 상품권(2만원)을 드립니다.

▲ 보내실곳 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

▲ 당첨자 : 김현숙 <영광군 영광읍 백학리> 신미순 <광주시 북구 문흥동>

 리빙 센스

나쁜 자세 ③

◇ 옆으로 누워 진다

옆으로 누워서 자면 허리가 심한 압박을 받는다.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아 팔이 저리고, 선잠을 자게 되는 등 몸 전체의 균형이 뒤틀릴 수 있다.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잠이 오질 않아 뒤집어 뭘 때에는 높이가 낮은 쪽 어깨를 밑으로 하여 눕고 잠이 올 듯하면 다시 반듯하게 누우면서 자는 습관을 바꾼다.

◇ 아기기를 안다

서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허리와 고개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, 앉아서 안으면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. 가장 좋은 자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아기를 안거나 젖을 먹이는 것이다.

◇ 세수할 때 상체를 숙인다

대부분의 세면대는 각자의 키에 맞지 않아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. 앉아서 다리를 벌려 앞으로 쓸린 상체의 무게를 앞쪽 밭에 실어야 허리에 무리가 적게 간다. 이 때 앞쪽 무릎은 세면대의 높이에 맞춰 약간 굽혀준다.

아하! 오늘이 바로 그날

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 옥사



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서
도 조국의 독립을 외치던 유관순 열사는 1920
년 9월 28일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옥사했다.

1902년 10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의 작은 마
을에서 태어난 유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시절이
던 1919년 3·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
가두시위를 벌였다.

이후 3월5일 낙대문 앞에서 벌어진 학생단
시위에 참가했던 유 열사는 경무총감부에 불жал
렸다가 외국 선교사들의 항의로 풀려나기도 했
다. 3월10일을 기해 모든 학교에 임시휴교령이
내려지자 유 열사는 같이 이화학당에 다니던 사
촌 언니 유에도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독립운동
등을 이어갔다.

천안·연기·진천 등지의 학교를 돌며 만세운동
등을 준비한 유 열사는 악속된 4월 1일 아무내
장터에서 3천여 명의 군중에 태극기를 나누어
주며 시위를 이끌었다. 유 열사는 출동한 일본
현병에 체포되었고, 만세운동에 참가한 아버지
와 어머니는 일본 현병에 피살됐다.

공주재판소로 넘겨진 유 열사는 자신의 숙부
인 유중무 선생과 함께 징역 5년을 언도 받고
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. 수감중에도 독립만
세를 치르지 않던 유 열사는 옥중 생활 1년 반
만인 1920년 9월28일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 의해
방광과열로 순국했다.

뒤늦게 유 열사의 순국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
교장 미스 프라이어와 월터가 형무소장에게 시신
인도를 요구했지만, 형무소장은 시신의 상태를
알리지 말라는 조건 아래 토막난 시신이 든 죽
유상자를 넘겨줬다.

10월14일 스승과 동문에 의해 유 열사의 장례식
치러졌고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됐다.

한편 2007년 2월 문화관광부는 일제시대 서

지난 2007년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이 새로
지정돼 천안에 위치한 추모각에 봉안됐다.

대문 감옥의 수형자 기록표 사진을 바탕으로 제
작된 유 열사의 영정 대신 충남 대유여관 교수
가 그린 영정을 새 표준영정으로 공식 지정했
다. 기존의 영정은 혹독한 고문 등에 시달리던
서대문 수형시설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돼 실제
의 얼굴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

새로 지정된 표준영정은 가로 120cm·세로
200cm로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교실에서 의
자에 앉아 태극기를 편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
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. 새 표준영정은 지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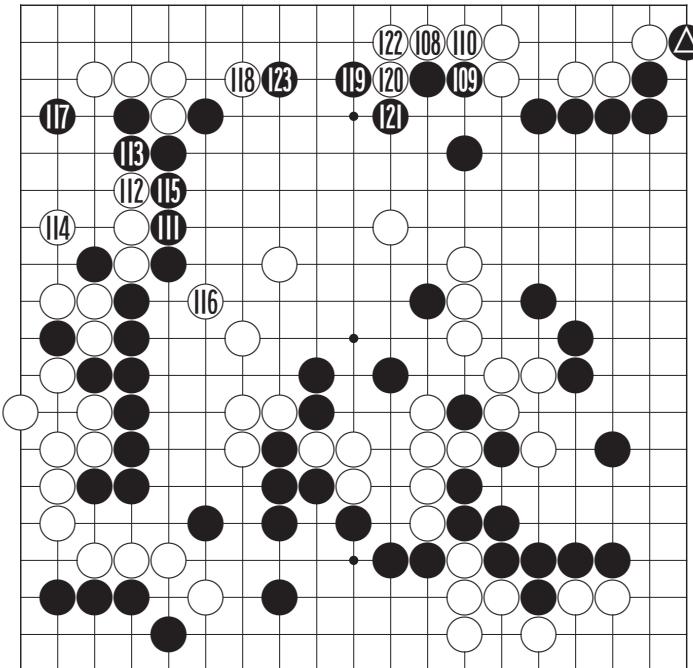
2007년 2월28일 천안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추
모각에 봉안됐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제17회
光日盃
광주 전남 직경비둑대회

소득없는 좌충우돌

개인전 결승전 8보 (108~123)

白 박광주 5단 黑 김영수 5단
(포스코) (전남교사회)

김영수 5단의 시름이
깊어가고 있다. 중앙의 흑
녀점이 잡힌 것이 무려 30
여 집이나 돼서 우변의 흑
집을 상쇄하고도 남는다.

우변에 집을 지으려고 투
자한 노고를 생각하면서 너
무니도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. 집차
이가 많이 벌어진 것이다.

안되는 줄 알면서도 흑 △로 잣혀 보았으
나 역시 박광주 5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108
로 불여오자 잡는 수가 없다. 김영수 5단은
기세로 109로 두었으나 이 수로는 ‘참고도’

의 흑 1로 젓하고 싶다. 그
러면 백은 2로 끊어야 되
는데 9까지 실리를 벌면서
계속 백 대마를 추궁할 수
있었다.

그런 다음 손을 돌려 흑
115까지 좌변을 막아갔는

데 박광주 5단은 116으로 지켜 몸조심을
한다. 탈만 나지 않으면 이긴다는 생각이
다.

흑 117부터 123까지는 그야말로 좌충우
돌로 성난 황소처럼 덤벼들고는 있는데…

<오규철 9단·본보 바둑해설위원>

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

EL DORADO RESORT & SPA 엘도라도리조트

굿모닝 잉글리쉬 <1152>

How do you like Mary?

메리는 어때?

A : How do you like Mary?
B : She's great. But it will be a while before I will get used
to her parents.

A : That's just takes time

B : That's what I'm hoping.

A : 메리는 어때?

B : 정말 좋은 사람ай야.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하고도 친숙
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.

A : 그런 것은 정말 시간이 필요해.

B :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래.

* How do you like ~?

= ~은 어때?

* 나는 그 여자의 태도에 적응하게 되겠지.

= I will get used to her attitude.

* be a while = 시간이 걸리다

오하요우 니혼고 <1152>

この食堂(しょくどう)は何がおいしいですか。

이 식당은 무엇이 맛있습니까?

A : この食堂(しょくどう)は何がおいしいですか。

B : カルビがおいしいですよ。

A : カルビは高(たか)くありませんか。

B : 少(すこ)し高いですが, 本當においしいですよ。

A : 이 식당은 무엇이 맛있습니까?

B : 갈비가 맛있습니다.

A : 갈비는 비싸지 않습니다?

B : 조금 비싸지만 정말로 맛있습니다.

食堂(しょくどう) : 식당

少(すこ)し : 조금

カル비 : 갈비

니하오 쟁구워 <229>

你的座位在哪里?

너의 자리는 어디야?

A: 这是 我的 教室。
zhè shì wǒ de jiāochi

B: 你的 座位 在哪里?
nǐ de zuòwèi zài nǎlǐ

A: 在 教室 的 中间。
zài jiào shì de zhōngjiān

B: 知道了。
zhīdào le

A: 여기는 나의 교실이야.
E: 너의 자리는 어디야?

A: 교실 중간이야.
E: 알겠어.

教室 [jiào shì] 교실

座位 [zuò wèi] 자리, 위치

한자 이야기 <869>

長頸烏喙(장경오훼)

길장, 목경, 까마귀 오, 부리 훠

장경오훼(長頸烏喙)는 목이 길고 입이 까마귀 부리처럼 뾰족
하게 생긴 사람이다. 이 말은 범려가 춘추오래의 마지막 폐자
(霸者)였던 월왕(越王) 구전(勾踐)의 인상을 평한 말이다. 이런
인상을 가진 사람은 슬기롭고 참을성이 있어 환난(患難)은 잘
견디니, 잔인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가 심하여 부귀영화를 함께
누릴 수 없다고 한다.

월왕 구전이 '와신(臥薪)'의 주인공인 오왕 부차(夫差)를 '상
답(蒼鵲)'의 고통으로 대항하여 폐자가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
책략가 범려가 있어 가능하였다. 범려는 폐업(霸業)을 완성한
뒤, '공을 이룬 물려나는 것이 하늘의 도'라고 말하면서 제

(齊)나라로 떠나갔다. 그는 친구인 문종(文種)에게도 함께 떠
난 것을 권유하였으나, 문종은 떠나기 싫어졌다. 범려는 문
종에게 보낸 편지에 “나는 새가 다하면 좋은 활은 슬모가 없고
(조진궁장·鳥盡弓藏), 토끼가 끝나면 사냥개는 삶겨 죽으
니(토사구팽, 禿死狗烹), 적국(敵國)이 망하면 모사(謀士)가 죽
는 법이오. 구전의 상(相)은 목이 길고 입은 까마귀 주동이이
니, 이런 인물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누
릴 수 없소”라는 구절이 있다. 과연 얼마 뒤 문종은 구전에게

죽임을 당하였다. (史記·越王勾踐世家)